

전북도, 중동 리스크 대비 사료 수급·가격 현장 점검

감제 농협사료 전북지사 방문 중동 정세 장기화 대응 방안 논의 유가·환율 상승 가격 불안 우려 사료구매자금 지원 부담 완화

전북도는 6일 김중훈 경제부지사가 김제시에 위치한 ㈜농협사료 전북지사를 방문해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사료 가격 및 공급량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점검은 중동 지역 갈등 지속에 따른 유가 상승과 곡물가격 변동, 환율 불안 등으로 사료비 상승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료업체의 생산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대응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사

료 원료 계약은 이미 완료되어 단기적인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나, 유가와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향후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추경으로 확대된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사료업체에는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을 활용해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축산농가 사료경영 안정 지원사업과 농림수산발전기금 등을 통해 경영비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중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최근 중동지역 상황으로 사료 원료 수급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사료가격 안정과 축산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도와 사료업체가 함께 대응



<사진=전북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사료 수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사료업체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장정철 기자

<1면에서 이어서>

미 해군 함정 MRO 사업처럼 가동 중단 시간 최소화 핵심인 상황에서는 긴급 부품과 전문 인력의 신속 투입을 위한 항공 접근성이 수주 경쟁력과 직결된다. 스마트 조선소 전환 과정에서 수도권·해외 연구 기관과의 상시적 기술 교류가 필수적인 만큼, 항공 노선 확충은 우수 연구 인력 유치를 위한 결정적 조건으로도 작용한다. 한편 분야에서는 군산조선소의 완전

글로벌 선주 접근성 개선 과제... 항공·철도망 확충이 경쟁력 직결 제2투기장 등 항만 인프라 시급

가동을 뒷받침할 기반 시설 확충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급강 하구 인근 해역 항로에는 금강을 따라 내려온 퇴적물이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초대형 및 대형 선박의 건조와 인도, 대형 자재의 원활한 수송을 위

해서는 충분한 수심이 갖춰져야 하며, 준설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예산 투입 확대와 제2투기장 조기 완공이 요구된다. 철도 분야에서는 조선산업 전반의 스마트 전환 가속화 및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한 철도 인프라 구축이 중점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고속철도망을 통해 서울·경기권에 거주하고 있는 국내외 연구 인력의 접근성을 높이고, 인입철도망을 통해 전주·익산 등에서 출퇴근하

는 근로자에 대한 장거리 통근 부담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군산조선소 완전 재가동이 가시화된 만큼 SOC 인프라 구축을 국가 정책 과제로 반영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면서 "조선소 재가동 일정에 맞춰 인프라를 신속하게 갖추는 것이 글로벌 투자 유치와 수주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민주당 "동학농민혁명 세계화...전북 미래 먹거리로"

민주당 전북 단체인재 후보 공동선언 헌법 전문 수록·서훈 추진제시 웹툰·영화 연계 콘텐츠 산업 육성

이윤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는 6일 "전북 지역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들과 함께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와 조지훈 전주시장·유희태 완주군수·권익현 부안군수 예비후보는 이날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민주당 후보원팀은 전북의 숭고한 역사적 자산인 동학농민혁명을 미래 전북의 확고한 정체성이자 도민들을 먹여 살릴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월 11일)을 맞아 앞두고 연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추진 및 참여자 예우 격상 △동학 역사문화

권 조성사업의 국가사업화 △동학 가치 세계화 등 3대 전략을 내놓았다. 이들은 먼저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국민운동을 주도하고, 국가보훈부와 협의해 전봉준·손화중 장군 등 핵심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기념식으로 승격된 동학이 더 완벽한 국가기념식이 되도록 도지사 및 시장·군수, 지방의원들과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전북 전체의 공식 행사'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들은 동학 역사문화권과 관련해서는 "(가칭)동학 역사문화권 조성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동학을 규모 있는 국가사업으로 건인하겠다"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학의 기록을 보존하고 세계화할 '글로벌 동학 아카이브'를 조성하고, 아이들을 위한 '철단 미래세대 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



<사진=이윤택의원실>

인 집강소 복원 △전주화약 공인 건립 △기념비 건립 △생명의 순례길 조성 등을 지역별 핵심 사업으로 제시했다. 동학 가치 세계화에 대해서는 "동학의 가치를 국민과 세계인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일상과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겠다"며 "미디어, 웹툰, 영화 등으로 동학을 풀어내 전북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도민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동학 민주주의 주간'을 운영하고, 이를 '동학 민주주의 국제포럼'과 연계하는 한편, '동학 평화·인권 국제상'을 제정해 전 세계 인권 운동가들과 연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밖에 동학농민혁명 세계화 추진에

조배숙, 조직사기 피해방지 특별법 대표발의

보이스피싱·폰지사기 대응 강화 플리바게닝 도입 실효성 확보



조배숙 의원

조 의원은 지난 2025년 8월부터 약 8개월간 1만 3천여 명이 소송된 사기 피해자 단체인 '한국사기에 방국민회(대표 김주연)'와 5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를 통해 실제 피해 사례와 고충을 법안에 녹여냈다. 또한, 작년 8월 국회 추경대회와 11월 현직 법관·경찰·법무부가 참여한 공청회를 거치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투자 리딩방, 폰지사기 등 조직화·지능화된 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직적 사기 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한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사기 범죄는 2019년 약 30만 건에서 2025년 42만 건으로 급증하며 국민의 일상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범죄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교묘화됨에 따라 기존 수사 방식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수사 인력 부족과 사건 처리 지연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대응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2025년 60%로 급감하며 수사 및 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이번 특별법안은 ▲수사 실효성 제고: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신분 비공개 및 위장수사 등 강력한 수사 특례 도입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범죄와의 개인성이 있는 재산에 대한 '범죄재산 추징 및 몰수' 규정 마련 ▲주범 검거 조를 풀어나기 위한 사법협상제도(플리바게닝) 도입 ▲전문성 강화: 금융·회계·정보통신 분야 전문가를 '수사지원위원'으로 지정하여 수사 대응력 보강 등을 주요 골자로 다루고 있다.

조 의원은 "사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이 언제든 노출될 수 있는 절박한 문제"라며, "날로 고도화되는 사기 기법을 현행 사법 체계가 따라잡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일상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 범죄가 더 이상 감옥에 다녀와도 남은 장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강력한 체계를 구축하여 사기 범죄를 뿌리부터 근절해야 한다"며 "이번 민생법안은 여야를 떠나 시민들의 피해에 깊이 공감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현재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만 건으로 급증하며 국민의 일상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범죄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교묘화됨에 따라 기존 수사 방식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수사 인력 부족과 사건 처리 지연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대응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2025년 60%로 급감하며 수사 및 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이번 특별법안은 ▲수사 실효성 제고: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신분 비공개 및 위장수사 등 강력한 수사 특례 도입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범죄와의 개인성이 있는 재산에 대한 '범죄재산 추징 및 몰수' 규정 마련 ▲주범 검거 조를 풀어나기 위한 사법협상제도(플리바게닝) 도입 ▲전문성 강화: 금융·회계·정보통신 분야 전문가를 '수사지원위원'으로 지정하여 수사 대응력 보강 등을 주요 골자로 다루고 있다.

<본사 사령>

- △ 기자 임근석 (군산주재)
- △ 본부장 지송길

- 5월 7일자 -

는 김재준(군산)·최정호(익산)·양충모(남원)·전춘성(진안)·황인홍(무주)·최훈식(장수)·한득수(임실)·심덕섭(고창) 등 다른 지역 민주당 단체인재 후보들도 원팀으로 함께하기로 했다. /서울=김영목기자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5대 반칙운전 근절

- 새치기 유턴
- 버스 전용 차로 위반
- 꼬리 물기
- 끼어 들기
-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JBT 전북타임스연중 캠페인

중동 정세 여파...농업용 필름 공급 안정화 추진

농식품부·산업부·농협 협업 지역농협 공장 원료 공급 필름 생산 안정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농식품부, 산업부, 농협이 협업체 농업용 필름 안정적 공급을 추진한다. 농업용 필름 안정적 공급은 산업부

에서 석유화학기업 협조를 통해 농업용 필름 공급 핵심 원료를 공급하면, 필름 제조업체는 공급받은 원료로 농업용 필름을 생산해 재고가 부족한 지역농협 등에 공급하는 구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농협경제지주(대표이사 김주양, 이하 '농협')은 국내 농산물 가격 또는 민생 물가 안정 차원의 농업용

필름 안정적 공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농협 지역 필름공장 2개소(진주원에농협, 광주원에농협) 중 참여 의사를 밝힌 진주원에농협(조합장 강복원, 이하 진주원협)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진주원협 원료 공급처인 한화솔루션과 협조해 금주 내로 농업용 필름 원료를 공급할 예정이다.

따라서 진주원협은 공급된 원료로 농업용 필름을 생산해 지역농협 6개 재판매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참고로 농식품부·농촌진흥청·지방정부·농협 합동 현장점검(4월 4일~15일) 결과, 봄철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 필름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어 영농 활동이 문제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태 기자

제52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전주 개최

5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전야제·공연·학술포럼 대장정

대한민국 최고 국악 경연대회 전주대사습놀이가 공도부 경연을 시작으로 한달간 대장정에 돌입한다. 전주시와 (사)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는 오는 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제52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및 '제44회 학생전국대회'를 개최한다. 두 대회는 전주대사습청과 국립무형유산원 등 전주시 일원에서 진행되며 각 대회는 전통예술 경연과 공연, 학술포럼 등



전통예술 향연의 장이다. '태평안락(太平安樂)'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대회는 첫날 공도부 경연을 시작으로 판소리 명창부, 농악부, 무용 명인부, 가야금 병창부 등 총 1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전국 각지 국악인들이 참여해 기량을 겨루게 된다. 학생 전국대회도 판소리부, 농악부, 관악부 등 10개 부문에서 열려 미래 국악 인재들의 등용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 올해 대회에서는 '동락(洞樂)'을 주제로 한 전야제와 축하공연, 기획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함께 마련돼 시민과 관광객이 전통예술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다. 전주시는 제52회를 맞은 올해 전국대회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 국악의 미래를 짊어질 새로운 국악 인재들이 발굴되고, 200년 전통의 국악 대축제인 전주대사습놀이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연에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오는 18일까지 (사)전주대사습놀이조직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여름철 감염병 비상방역체계 가동

지난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감시 24시간 비상연락망 구축

전주시가 여름철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했다. 전주시보건소 김신선 소장은 지난 1일부터 추석 연휴를 포함한 오는 9월 30일까지 비상방역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김 소장의 비상방역체계 운영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을 미리 인지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집단발생 감시를 위해서다. 관련해 보건소에 따르면 "기온이 상승하면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지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평균적으로 하절기(6-9월)에는 집단발생이 그 외 기간(10-4월)보다 상

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총 596건의 집단발생 건수 중 46.6%인 278건이 하절기인 5-9월에 발생했다. 이에 보건소는 집단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24시간 비상연락망을 유지해 유관부서와 상황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 방역기간 내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 능력 점검을 위한 비상응속훈련도 실시

할 예정이다. 한편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손 씻기 생활화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물은 끓여 마시기 △채소, 과일 등은 깨끗한 물에 충분히 씻어 먹기 △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조리 및 준비 금지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등 6대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동물등록자진신고 기간' 운영

7월 공원·산책로 집중 단속 한다.

전주시는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반려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기존 등록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현행화하기 위함이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간 내에 신고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이미 등록을 마쳤더라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동물물을 분실하거나 동물이 죽은 경우 등은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오는 6월부터는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으로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동물생산업자'가 확대됨에 따라 '동물생산업자'에서 기르는 개로서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도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는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전주지역 41개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된다. 또 주소나 연락처 등 단순 변경 사항은 정부24나 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오는 7월 한 달간 공원과 산책로 등 반려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이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소민 기자



문화유산 화재 진압 현장 <사진=전북소방본부>

전북소방본부 목조문화유산 화재예방 총력

도내 355개소 대상 부처님 오신날까지 4주간 추진

전북소방본부가 도내 355개소 전통사찰·목조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6일 전통사찰과 목조문화유산 화재예방을 위해 집중 안전관리 대책을 6월 25일 부처님 오신날까지 4주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봉축행사 기간 연등 설치와 촛불 사용 등 화기 취급 증가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반영해 사전 예방과 현장 대응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도내 전통사찰과 목조문화유산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2건으로 약 2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정소민 기자

이 가운데 42%는 부주의로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전북소방본부는 도내 전통사찰 119개소와 목조문화유산 214개소, 목조명소 22개소 등 총 355개소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펼친다. 주요 내용은 사찰 관계자의 자율 안전점검을 사전에 실시하도록 하고, 소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화기 취급 시 안전관리 사항을 지도한다. 아울러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화재재난조사를 병행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처님오신날 전후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해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고 예방소찰을 강화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박용주 재이탈리아 한인회장 '전주시 해외자문관' 위촉

시-이탈리아 실질적인 교류 강화 전주 위상 제고 기대

6일 박용주 재이탈리아 한인회장이 전주시 해외자문관으로 공식 위촉됐다. 박용주 신임 해외자문관은 유럽한인총연합회 사무총장과 로마 한인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사업가다. 그는 이탈리아 현지에서 30년이 넘게 여행업, 숙박업을 운영하며 한인사회에 봉사를 이어오며 제19대 재이탈리아 한인회장을 맡고 있다. 시는 이번 위촉을 계기로 이탈리아 교민들과의 현지 인적 기반을 바탕으로 문



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로버트 안 LA한인회장을 비롯해 미국 스페인, 호주 등 4개국 6명의 해외자문관을 위촉했다. 아울러 자문관들의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전주시의 글로벌 행정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수미 국제협력담당관은 "해외자문관 제도는 세계 각지 한인 사회와의 연결을 통해 전주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시 간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경찰 보험금 편취 축산업자 7명·수의사 검거

한우 귀표 바꿔치기 방식 약 4억4000만원 허위 청구 편취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보험금 4억4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8명을 검거해 주범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 피의자들은 가족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를 타겟삼아 보험에 가입된 소의 귀표와 바꿔치기하며 긴급도축하는 방법으로 총 245회에 걸쳐 허위 청구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귀표란 소·돼지 등 가축의 귀에 부착, 백신접종·도축 정보를 식별하는 인식표. 긴급도축, 가족이 병에 걸린 경우, 진단서를 첨부해 도축하는 것. 적용법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 8-10(1) ↓징역, 5천만원 ↓벌금. 피의자들은 '22년~24년 사이 군산·김제·고창 지역 한우농가 8곳을 운영하던

병행을 조려한 수의사를 추가 인지해 송치하고 주범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도축한 소의 DNA와 귀표상 DNA가 다르다는 점, 폐렴으로 도축됐음에도 폐부위가 폐기되지 않고 유통되었다는 점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를 입증해 주범을 구속 송치했다. 가족재해보험은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해 마련된 보험제도인 만큼,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경찰은 '한우 귀표 바꿔치기' 보험사기 범행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개별 농가가 직접 귀표를 부착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재발행된 귀표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경찰 도내 대학축제기간 '교통안전 특별관리' 강화

전북경찰청은 6일부터 시작된 전북대학교 축제를 기점으로 차량·인원증가에 따른 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대학 축제 기간 교통안전 특별관리'를 전개한다. 특별관리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전북대학교 축제를 시작으로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원광대학교, 26일부터 28일까지 군산대학교 축제 일정에 맞춰 실시될 예정이다. 각 대학 축제 기간 중 인파가 몰리는 혼잡 시간대 전·후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한다. 대학 정문 및 인근 주요 교차로에서 차량 소통을 원활히 관리하고, 축제 방문객들의 무단횡단 방지 등 동행자 보호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 아울러 자치단체와 함께 삼승 불법주·정차 등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를 집중 관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오선영 신임 원장 임명



전북대학교병원 양종철 병원장은 신임 의생명연구원장에 신경과 오선영 교수(사진)를 임명했다. 이에 따라 오선영 신임 원장은 2028년 4월 30일까지 의생명연구원의 운영과 주요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전북대병원 의생명연구원은 임상 및 기초의학의 연구를 통한 의학발전과 국민보건향상을 목적으로 1991년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신약 개발 임상시험, 기능성식품 임상시험 지원,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유효성평가, 동물실험 등을 통해 미래 바이오 분야 연구에 도전하고 있다. 특히 임상기초연구 성과를 활용해 환자에게 임상 적용이 가능한 세계적 수준의 혁신의료기술 개발과 임상시험, 기술사업화 지원 등 전북지역 임

상연구 거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임상시험센터,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 의료기기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 전북비데이터센터, 유효성평가센터 등이 설치 운영 중이다. 이들 센터를 통해 매년 국책과제, 외부 위탁과제, 원내 과제 등 다양한 임상시험과 중개임상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오선영 의생명연구원장은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및 전북대병원 신경과 교수로, 어지럼증, 두통, 다발성경화증, 중증근무력증 등 신경계 질환을 진료 및 연구하고 있다. 그는 또 현재 대한평형학회 학술이사, 대한신경면역학회 연구이사,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기획이사로 활동하며 국내 학술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 학술지 Frontiers in Neurology의 Associate Editor로서 활발한 학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소민 기자

전북TP, 특수목적기계 디지털 전환 지원

도내 특수목적기계 산업 DX:AX 가속화 최대 4000만원 지원

전북도-익산시-김제시-전북테크노파크(전북TP)는 Track 3: A-SW 시장 출시제품 기획 및 설계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사업은 도내 농기계 및 특수목적기계 관련 제품을 보유한 기업들이 기존 제품에 A-SW(Application Software)를 적용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구현 및 제품 완성도 확보를 위해 SW 개발역량을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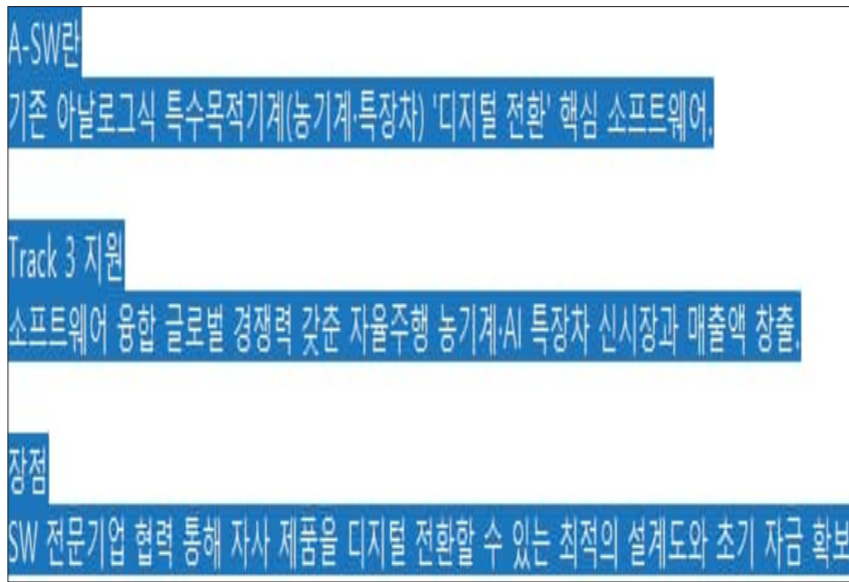
한 전문 수행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이 필수 요건이며, 평가를 통해 8개사 내외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4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또 보조금 신속 집행을 위해 협약 체결 후 지원금의 50%를 선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기술기획 △시스템 설계 △SW 설계와 선택 항목인 사업화 기획으로 구성된다.

참여 기업들은 이를 통해 기존 제품의 A-SW 적용 핵심 기능을 정의하고, 데이터 흐름 및 HW-SW 통합 구조 기본 설계 등 실제 사업화가 가능한 최적화된 설계 지원을 받게 된다.

사업 신청 접수는 지난 4일부터 오는 20일 오후 6까지 전북R&D종합정보시스템(<http://md.jbtp.or.kr/>)을 통해 온



라인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jbtp.or.kr) 사업 공고란을 확인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제8회 청정축산 환경대상

청정축산 환경대상 우수농가 선정은 △축사 환경 △냄새저감 △분뇨처리 △동물복지 등에 대한 엄격한 현장평가와 심사를 통해 지역별 예선평가와 본선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한편 전북농협 '청정축산 환경대상' 3곳 선정은 국내 축산업 관련 최다 선정으로 전북지역 축산업 우수성을 입증한 것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지역 축산업 '우수성' 국내 최고

'청정축산 환경대상' 3곳 선정

전북농협 '제8회 청정축산 환경대상' 농가가 선정됐다. 전북농협 김성훈 본부장에 따르면 '제8회 청정축산 환경대상' 시상식은 지난달 30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청정축산 환경대상'에서 △특별상에 순정축협 코리아농장(농해수위원장) △우수상에 동진강남농축협 상하금성목장(농협중앙회장) △우수상에 무진장축협 장수축협농

장(농협중앙회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청정축산 환경대상 우수농가 선정은 △축사 환경 △냄새저감 △분뇨처리 △동물복지 등에 대한 엄격한 현장평가와 심사를 통해 지역별 예선평가와 본선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한편 전북농협 '청정축산 환경대상' 3곳 선정은 국내 축산업 관련 최다 선정으로 전북지역 축산업 우수성을 입증한 것이다. /김영태 기자

경진원-국민연금공단, 지역상생발전 협약 체결

지역 농가소상공인 판로 확대 등 협력사업 추진

전북도와 (재)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은 국민연금공단과 지역 사회 상생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6일 체결했다.

협약은 전북생생장터를 중심으로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의 판로를 넓히고, 국민연금공단 임직원 지역 우수 농특산물 구매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지역 제품 우선구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진원은 이를 통해 지역 내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하는 상생 구조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공헌 모델을 정립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전북생생장터 회원가입 및 이용 활성화, 우수 농특산

물 홍보, 명절 선물세트 및 기념품 등 기관 구매 물품의 지역 상품 활용 확대를 추진한다.

또 도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공공구매 지원단 및 상담회 연계, 기관 수요 물품과 기업 리스트의 사전 매칭 등 실질적인 구매 연계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경진원은 협약을 계기로 국민연금공단 임직원이 전북생생장터를 통해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과의 협력 범위를 확대해 도내 기업의 판로 확보와 공공구매 실적 향상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경진원 윤여봉 원장은 "국민연금공단과의 업무협약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함께 이끄는 의미 있는 협력"이라며 "전



북생생장터와 공공구매 연계를 통해 도내 농가와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진원은 협약 이후에도 기관 회원가입 확대, 우수 농특산물 홍보, 공



농진청, 신제품 콩 '다드림' 보급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재배 안정성, 수량성을 모두 갖춘 두부용 콩 '다드림' 현장 보급을 본격 확대한다. 콩 '다드림'은 콩 수율과 두부 수율이 높아 '다 드린다'라는 의미이며 두부 가공에 최적이다. '다드림'은 두부 수율이 283%로 기존 '대원콩'(216%)보다 67%포인트(p) 높다. 종자 100알 무게가 30.9g으로 '대원콩'(27.6g)보다 커서 동일한 양의 원료로 더 많은 두부를 생산할 수 있다. 식감도 부드럽어 일반 두부뿐 아니라

연두부나 순두부 가공에도 적합하다. 수량은 10아르(a)당 평균 337kg으로 '대원콩' 대비 8%(313) 많으며, 건조 시 상단부 꼬투리가 일부 터질 수 있어 적기에 수확해야 한다. '다드림'은 재배 안정성도 높아 쓰러짐에 강하며 첫 꼬투리가 달리는 높이가 '대원콩(11cm)'보다 높은 16cm로 기계수확에도 적합하다. '다드림' 종자는 오는 31일까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종자광장' 누리집(<https://www.seedplaza.or.kr>)에서 구매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특별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행"

힐링라이프스타일·식도락 트레킹 4가지 테마

농림축산식품부 '2026 일반형 소규모 농촌 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에 총 35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2026 일반형 소규모 농촌 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최종 선정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사업계획 제출 총 113개 농촌관광 경영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서류·현장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특히 올해 선정에는 △도심을 벗어난 농촌에서의 휴식을 제공하는 '힐링형' △농특산물 등 미식을 찾아 떠나는 '식도락형' △숲길 등 자연과 마을을 잇는 '트레킹 연계형' △은퇴자에게 농촌의 새로운 삶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라이프 스타일 탐색형' 등 총 4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이색적인 농촌 체험프로그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농촌체험프로그램은 빠르면 오는 6월부터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전망이다.

'농촌 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전문가 맞춤형 자문과 함께 △프로그램 기획·개발 △시범 운영 △홍보·마케팅 △온라인 플랫폼(OTA) 입점 기획 등 다각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사업은 가족, 연인, 친구 등 소그룹 단위의 여행객들에게 농촌체험마을 등 농촌관광 경영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 시·군 농촌체험지원사업 35개소 대상은 '인제군', '합천군', '연천군', '강성군', '진안군', '여주시', '연천군', '안성시', '진포시', '파주시', '평창군 2', '진천군', '보은군 2', '아산시 2', '홍성군', '서



천군', '아산시', '구미시', '봉화군', '합천군', '의령군', '고창군', '익산시 3', '완주군', '무주군', '여주시', '고흥군', '제주시 3' 등이다. 한편 농식품부 농촌체험프로그램 개

소방기관 사칭 사기 피해, 19건·2억원 넘어

최근 소방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을 사칭한 소방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기 범죄가 도내 전역에서 발생되고 있다.

특히 특히 허위 공문서와 위조 공무원 증서가 동원된 조직적 범행이 이어지면서 업종과 지역을 가리지 않은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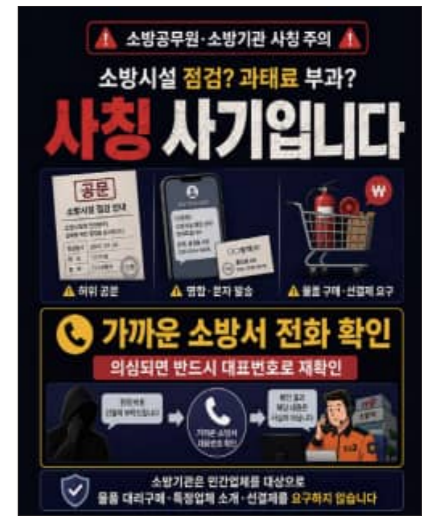
이에 사기 범죄에 따른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전북소방본부는 당부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도내에서 접수된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는 총 19건으로 피해금액은 약 2억9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도 유사 사례 신고와 관련 문의가 지속적으로 접수되면서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기범들은 소방서 직원이나 시청 공무원 등을 사칭해 "소방법이 개정됐다", "정부 보조금이 지원된다", "안전점검 전 반드시 구매해야 한다" 등 말로 유혹한 뒤 리튬소화기나 소방시설 구매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가고 있다.

범행은 허위 공문서와 공무원증을 제시하거나 실제 기관명을 도용하는 등 수법이 점차 조직화·지능화되면서 숙박시설, 목욕탕, 주유소, 음식점, 고시텔 등 업



<사진=전북소방본부>

종을 가리지 않고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전주에서는 "소방법 개정"을 이유로 리튬소화기 구매를 유도해 19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무주 지역 주유소에서는 소방시설 구매 강요로 3800만원 이상의 피해가 접수되기도 했다.

한편 관련 사안에 대해 전북소방본부는 경찰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정소민 기자

중기부, 지역R&D 신규과제 306개 최종 선정

2년간 총 2800억원 투입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중기부는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신규과제 306개'를 최종 선정하고 2년간 총 2800억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은 지역 내 매출과 고용 비중이 높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협업 생태계 구축을 추진해 지역경제 성장 기반 강화에 따른 것이다.

사업은 크게 포항공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등이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 주

력산업 생태계 구축과 개별 기업을 지원 하는 '지역기업 역량강화'로 구분되며 각각 157개 및 149개 과제가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에 연 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으로 제한하던 신청 기준을 완화해 연구개발 투자비용 5% 이상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넓혔다.

이는 아직까지 매출은 많지 않지만 연구개발 역량과 의지를 갖춘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신청과제 수는 738건으로 전년 대비 약 2.7배 증가했으며, 기술분야별 평가와 표준점수 도입 등 평가의 공정성도 높였다.

신청분야도 제조,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등 지역 주력산업 전반에 걸쳐 크게 분포했다.

제조가 25.9%로 가장 높았고, 모빌리티 24.0%, 바이오 22.6%, 에너지 20.7% 순으로 나타났다.

방산우주와 콘텐츠 분야도 각각 54%와 18%를 차지해 지역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가 기존 제조기반 산업 뿐 아니라 미래 신산업 분야로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종 선정된 기업들의 평균 연구개발 집약도는 11.7%(바이오 분야 제외, 바이오 평균 40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지역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전환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기존 대면평가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였으며, 기술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와 연계해 기업이 연구개발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력산업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북교육감 선거 '진영 대결'... 비방전까지

유성동 당일 회견 취소 이남호 음주운전 논란 천호성 논문 표절 의혹

6·3 지방선거가 한 달가량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가 지역 교육 정책 경쟁보다는 후보 단일화와 흡집 내 기시 정치 공세에 매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전북교육청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던 유성동 예비후보는 당일 아침 돌연 일정을 취소했다. 최근 선거 구도가 초점전 양상으로 전개되며 막판 단일화가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

운데,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기자회견 취소를 후보 간 연대를 위한 이번 거래의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도내 한 교육계 인사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천호성·이남호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0.9%p까지 좁혀지면서 유성동 후보와의 연대 필요성이 커진 분위기"라며 "유 후보 역시 6.3%의 지지율을 기록한 만큼, 두 후보들과 정책 연대설이 교육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가 3파전으로 굳어지는 상황에서 유 후보의 연대 조건으로 선거 이후 역할론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기자 회견의 갑작스러운 취소를 두고도 이런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후보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

책 연대는 사실무근"이라며 "다만 유 후보는 모임 활동도 같이 하는 친한 후배이며, 정책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여 연대 가능성의 여지를 남겼다.

유 후보는 취재진의 수차례 연락 시도에도 끝내 응하지 않았다.

정책 선거가 실종된 자리에는 네거티브 공세와 세 불리기만 남았다. 현재 이남호 후보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칼럼 대필 의혹이, 천호성 후보는 논문 표절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며 상호 비방전이 격화하고 있다.

여기에 전직 교육감들까지 얽히며 선거판은 진영 싸움으로 변질됐다. 진보 진영에서는 일찌감치 노병성 예비후보가

불출마를 선언하며 사실상 천호성 후보의 입지를 다져준 데 이어, 김승환 전 교육감이 전 후보 측에 합류해 세를 결합하고 있다.

이에 황호진, 이경한 예비후보가 이남호 후보 쪽으로 단일화를 이뤄냈고, 서거선 전 교육감마저 이 후보 진영에 등판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며 거대한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전직 수장들까지 등관한 현재의 대리전 양상이 정책 검증 없이 완전히 실종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후보 간의 교육 비전 경쟁은 뒷전으로 밀리고, 양 진영의 세력 다툼만 더욱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주·군산 특수학교 교명, 도민이 정한다

각 5개 후보군 대상 투표

전북교육청이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전주와 군산 지역 특수학교 2곳의 정식 교명 제정을 위해 6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도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대상 학교는 전주시에 설립되는 '(가칭)전주보통학교'와 군산시에 설립되는 '(가칭)군산지음학교'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교명 공모를 진행해 전주보통학교 172건, 군산지음학교 164건

의 제안을 접수했다.

이번 선호도 조사는 교명제정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를 통과한 학교별 교명 후보군 5개 중 1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포함해 도민 누구나 쿼알(QR)코드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위원회 2차 심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이후 독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을 거쳐 최종 교명이 확정된다.

/최성민 기자

전북 사격 선수 4명, 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

김채은·소승섭·양지인 추가은, 메달 획득 도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전북 사격 선수들이 메달 사냥에 나선다.

6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사격 국가대표 선발전 결과 전북에서 활동중인



김채은

추가은

여자부 공기권총 10m 종목에 나선 임실군청 소속 추가은은 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국가대표로 선발,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또 스키트 여자부에서도 김채은(전북일번)이 출전권을 획득하며 격전지인 일본으로 향하게 됐다.

전북 출신인 양지인(우리은행)과 소승섭(서산시청) 또 각각 여자 권총 25m와 남자 10m 공기권총에서 우수

한 성적을 거두며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획득했다.

이들 모두 메달 획득이 가능한 선수들로 좋은 성적을 기대해볼 수 있게 됐다.

전북사격연맹 관계자는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들이 아시안게임에서 선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군산대, 다문화 가정 초등생 새만금 탐방 프로그램

체험 중심 교육 기회 확대

국립군산대학교 생활과학교실이 군산 지역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채식각과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일대에서 현장 탐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사전 온라인 지질 교육과 현장 체험을 연계해 구성됐다.

참가 학생들은 채식각 지질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해 자연 형성 과정을 직접 관찰했다.

이러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상시 전시실 체험과 방조제 협동 놀이를 진행하며 새만금 개발과 환경에 대해 학습했다.

해당 사업은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생활과학교실'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유수창 국립군산대 생활과학교실 센터장은 "학생들이 지역의 소중한 자원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 중심 교육을 확대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익산시, 오는 9일 세계유산 문화행사 선배

익산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무대로 예술과 이야기가 어우러지는 문화 행사를 선보인다.

익산시는 오는 9일 세계유산 활용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2026 백제역사유적지구 선율속으로'와 '백제왕궁에서의 답소'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세계유산인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시민들에게 특별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오는 9일 오후 3시에는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미륵사지 석탑을 배경으로 클래식 공연 '선율속으로'가 펼쳐진다.

같은 날 오후 7시에는 왕궁리유적에서 '백제왕궁에서의 답소'가 진행된다. 천문학자 이명현 박사가 무대에 올라 '백제왕궁으로의 시간 여행'을 주제로, 우주와 별자리에 대한 인문학적 이야기를 시민들과 나눌 예정이다.

시는 오는 30일 '선율속으로'와 6월 13일 '백제왕궁에서의 답소'를 이어가

<사진=익산시>

/익산=최준호 기자



<사진=고창군>

'제14회 고창모양성배 전국탁구대회' 성료

고창군은 지난 2~3일 고창군립체육관에서 열린 '제14회 고창모양성배전국탁구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선수단 및 임원, 관계자 등 약 100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기를 펼쳤다.

특히 이번 대회를 주최·주관한 고창군체육회와 고창군탁구협회는 체계적인 경기 운영과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대회 전반을 안정적으로 이끌며, 참

가자와 관람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대회 기간 동안 선수단과 방문객들의 숙박 및 외식 이용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윤병준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전국 단위 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해 지역경제와 체육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국립공원 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와 협약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과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가 전북의 자연 자원과 문화예술을 결합한 지속 가능한 콘텐츠를 구축을 위해 힘을 모은다.

재단은 복합문화공간 하안양읍에서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와 지역 내 자연·역사 자원을 연계한 콘텐츠 기획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북이 보유한 국립공원의 생태적 가치에 문화예술의 감성을 더해 도민들에게 차별화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도심 속 문화공간을 거점으로 지역 자원의 가치를 새롭게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립공원 가치 확산 및 문화예술적 향유 확대 △자연·역사 자원 연계 콘텐츠 공동 기획 및 운영 △지역 자원 홍보 및 대외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

하기로 했다.

특히, 협약의 첫 실전 사례로 하안양읍의 기획전시를 공동 추진한다.

이번 전시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유람 기록을 바탕으로 한 국립공원의 사계와 생태적 요소를 예술적 시각으로 재해석한 창작품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달할 예정이다.

최영구 사무처장은 "도내 국립공원과 전북의 문화예술이 만나 도민들에게 더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전북만의 차별화된 콘텐츠 모델을 정립하고 지역 문화관광의 저변을 넓히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www.jbct.or.kr)과 SNS(인스타그램 new.jeo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예술회관운영팀(063-230-4230)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장정철 기자



익산시, 파크골프장 이용 행복콜버스로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활용한 익산시 목천지구 파크골프장 이용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익산시는 목천지구 파크골프장을 찾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산면 행복콜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오산면 행복콜버스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으로, 오산면과 터미널 등 주요 거점을 연결해 운행된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는 정해진 노선을 따라 운행하고, 그 외 시간대에는 콜센터(1533-3421)를 통한 예약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어 보다 유연한 이동이 가능하다.

출·퇴근 시간대 파크골프장을 경유하는 노선은 △오전 7시 △오전 8시 35분 △오후 4시 △오후 5시 40분 하루 4회 운행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는 콜 예약을 통해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 주말과 공휴일은 정해진 노선으로만 운행한다.

특히 이번 운행시간 조정과 함께 일부 시간대 노선을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터미널까지 연장해, 터미널을 이용하는 파크골프장 방문객의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

오산면 행복콜버스에 대한 자세한 운행 경로 및 시간은 익산시 누리집에 게시된 시내버스 운행시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행복콜버스를 활용하면 목천지구 파크골프장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한 생활 밀착형 교통 서비스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설립도서관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운영

군산시 설립도서관은 지역 내 정보취약 계층 아동의 독서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독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전국 공공도서관 중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설립도서관은 2025년에 이어 2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지역 기반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설립도서관은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찾아가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문화 접근성이 낮은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독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설립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문화 소외 아동들이 독서를 보다 친근하게 느끼고, 스스로 책을 찾는 습관을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183개소에 보안등 신설... 야간 보행환경 구축

익산시가 보안등 설치와 정비를 통해 밝고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총사업비 2억 5,800만 원을 투입해 183개소에 LED 보안등을 신규 설치하고, 보안등 1,280개소를 수리했다고 6일 밝혔다.

신설 장소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건의해 선정된 장소이며, 수리 대상은 민원 접수와 야간 순찰을 통해 고장이 확인된 곳을 우선적으로 정비했다.

이번에 설치된 LED 보안등은 에너지 효율이 높고 수명이 길어 전기요금과 유지관리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점멸 시간 자동화가 가능한 GPS 방식의 점멸기를 적용해 점등·소등 시간 오차를 줄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전망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인적이 드문 골목길과 주택 밀집지역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보안등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며 “고장 보안등은 신속히 정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농가 경영 지원 강화 2(題)

한우 농가에 미네랄블록 지원

정읍시는 고품질 한우 생산과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2억 10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사육 농가에 무기질 보충제(미네랄블록) 7000개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한우의 성장과 면역력 강화, 반식 효율 개선에 필수적인 무기질을 제공해 사양(가축 사육)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번 보급은 정읍시와 순정축협 정읍경제사업장이 함께하는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진행된다.

시는 축산업 허가와 등록을 마친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3월 지원 대상 선정을 완료했다. 확정된 농가에는 일정 수량의 미네랄블록을 차례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미네랄블록은 소 개체별로 부족하기 쉬운 영양 균형을 맞추는 데 뛰어난 효과를 보인다.

질병 예방은 물론 다가오는 여름철 폭염 대비까지 도울 수 있어 축산 농가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한우 농가의 가축 사육 관리 효율이 극대화되고 지역 축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꿀벌 집단 폐사 막는다... 방역 총력

정읍시는 기후 변화와 질병으로 인한 꿀벌 집단 폐사를 막고 양봉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체계적인 방역 지원에 나선다. 시는 양봉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선제적인 폐사율 감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질병 예방부터 면역력 강화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방역 체계를 세웠다. 세부적으로는 응애류와 노제마병, 낭충봉아부패병 등 꿀벌 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약품 지원에 9600만원

을 쓴다. 질병 저항성을 높이는 꿀벌 면역 증강제 공급에는 2600만 원을 배정했다.

양봉장 인력의 환경을 청결하게 소독하는 약품 지원에는 2700만 원을 투입한다. 시는 이번 방역 지원이 지역 양봉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전국적인 꿀벌 실종 사태로 양봉 기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체류형 농촌관광 ‘주목’

체험·숙박비 지원 및 콘텐츠 다양화 성과

익산시가 단순한 체험을 넘어 ‘머물며 즐기는 관광’으로 농촌관광의 체질을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익산시는 익산교육지원청과 대전시교육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단체의 방문이 잇따르며 농촌관광의 고객 층이 확대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단순 체험에 그치지 않고 숙박과 소비로 이어지는 체류형 관광으로 확장하면서, 재방문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도 형성되고 있다.

시는 체험·숙박비와 버스 임차료를

연계 지원하며 관광객 유입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체험·숙박비는 이용금액의 50% 범위에서 1인 최대 1만 원까지 지원하고, 20인 이상 단체 방문 시 버스 임차료도 지역에 따라 최대 2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다이어وم 시골여행’ 누리집을 통해 관광 정보를 한눈에 제공하고, 여행 상담부터 일정 안내, 현장 인솔까지 통합 서비스를 지원해 관광객 편의를 높이고 있다.

시는 체류형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특색있는 체험형 관광 콘텐츠와 계절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에도 매진하고 있다.

함라 한옥체험관에서는 드레사와 텃

시도 의상을 대여하는 ‘보석같은 시골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옥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이색 체험은 사진 명소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또 봄철 과일 따기와 피크닉, 여름철 물놀이 체험, 가을철 수확 체험 등 사계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캠핑과 캠프파이어 체험은 연중 진행해 체류형 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농촌관광이 체험 중심에서 체류와 소비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콘텐츠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 ‘다시 찾는 익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공공배달앱, 누적 매출 400억 돌파

소상공인소비자 상생 지역경제 선순환 모델 안착

군산시의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가 출시 약 6년 만에 누적 매출액 400억 원을 돌파하며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산시는 2020년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출시한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가 올해 누적 매출 400억 원, 누적 주문 건수 153만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시작과 함께 탄생한 ‘배달의명수’는 지난 6년간 수많은 무역곡절을 겪었다.

민간 배달앱들의 막대한 자본력과 마케팅 공세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군산 시민의 강력한 지지와 착한 소비’였다.

시민들은 내 지역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달의명수’를 우선 이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다.

이러한 시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배달의명수는 단순한 앱을 넘어 지역 공동체를 잇는 가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왔다.

배달의명수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으로는 ‘지역화페와의 연계’가 꼽힌다.

소비는 지역화폐 활성을 통해 가계 부담을 줄이고, 가맹점은 신용카드 대비 저렴한 결제 수수료 혜택을 받는 등 상생 구조가 견고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간 배달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배달의명수는 ‘중개수수료 0원’ 정책을 고수하며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는 매출 증대를 위한 적

극적인 마케팅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인기가 높은 무료배달 프로모션을 통해 매주 약 30~40개의 가맹점을 선정해 배달비를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며, 올 초 발송인 박명수를 전속 홍보모델로 발탁해 브랜드 인지도 강화 및 앱 이용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군산시는 향후 ‘전통시장 배송 플랫폼’ 기능을 탑재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손쉽게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일자리경제과장은 “배달의명수는 수수료 부담을 없애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다양한 결제 수단과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상생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동력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하절기 집중 방역 돌입

10월까지 연기 없는 친환경 소독 전면 도입

정읍시는 기후 변화로 앞당겨진 해충 발생 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친환경 연무 소독을 중심으로 한 하절기 집중 방역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시는 일본뇌염 등 주요 감염병 매개체인 모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정화조 등을 대상으로 유충 구제를 진행해 왔다. 모기 본격적으로 으르는 5월부터는 기온 활동 시기가 빨라진 점을 고려해 야간 차량 방역을 지

난해처럼 한 달 앞당겨 실시한다. 시내 하수구와 북개천 등 18개 방역 취약 구역을 중심으로 촘촘한 방역망을 짜 공백을 없애 계획이다.

이번 방역의 핵심은 과거 하얀 연기를 내뿜던 연막 소독을 대체한 ‘친환경 연무 소독’이다.

과거 살충제에 경유를 섞어 태우던 방식은 짙은 연기를 발생시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작용이 컸다.

반면 친환경 연무 소독은 경유 대신 물과 확산제를 섞어 분사한다. 연기가 발생하지 않아 자칫 방역을 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받기도 하지만, 미세한 입자가 해충 서식지 깊숙이 파고들어 기

존 방식과 같거나 오히려 더 뛰어난 방제 효과를 낸다.

보건소 관계자는 “연기가 보이지 않는 것은 환경 오염 물질인 경유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친환경 연무 소독은 환경과 시민 안전을 모두 고려한 선진국형 방식이므로 안심하고 신뢰해 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시는 이달 중 읍·면·동 방역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열고 방역 약품을 신속하게 나눠줄 예정이다. 순회경시 보건소장은 “유충 1마리를 잡는 것이 성충 수백 마리를 없애는 효과를 내는 만큼 상시 유충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

최대 2백만원 지원

군산시 청년플 창업센터(이하 창업센터)가 지역 창업가들의 온라인 판매 기반 강화를 위한 디지털 마케팅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문적인 마케팅 콘텐츠 제작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창업가 총 10개사를 선정해 업체당 최대 200만 원(VAT 제외)의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업체는 제품 사진 촬영, 상세페이지 제작, 홍보영상 촬영 등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창업가가 직접 외주업체를 선정하고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은 기본지원(유형 I)과 연계지원(유형 II)으로 구분해 추진된다. 기본지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군산인 창업가 중 온라인 마켓을 통해 제품을 판매 중이거나 준비 중인 자를 대상으로 총 8개사를 선정한다. 선발 방식은 서류평가 통과자에 한해 발표평가를 거쳐 고득점순으로 선발한다.

연계지원은 기본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2026년 군산형 창업 아카데미 수료생 중 당해연도 타 자



<사진=군산시>

금지원 사업에 선정된 창업가를 대상으로 2개사를 선정한다. 기본지원 모집기간은 오는 26일 오후 4시까지, 연계지원은 7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신청은 군산시 청년플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국제 또는 지방세 체납자나 2026년 군산형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선정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제작된 전문 콘텐츠가 실제 매출 증대로 이어져 지역 창업가들이 온라인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농업인 대상 적정 시비 확산

화학비료 사용기준 이행점검

익산시가 중동발 비료 수급 불안에 대응해 실제 필요한 양분량에 맞춰 비료를 사용하는 적정 시비 확산에 나섰다.

익산시는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적정 시비 교육과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이행점검을 병행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작물별 표준 시비량을 준수할 경우 질소 비료 사용량을 최대 15.6%까지 줄일 수 있어 생산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시는 비료 과잉 투입 관행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하

고자 경작면적 10ha 이상인 경영체 총 194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은 ΔpH △유기물 △유효인산 △교합성칼륨 등 4개 항목 중 3개 이상이 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시는 농경지 토양의 화학 성분을 분석해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적정량의 비료 사용은 비용을 줄이면서도 생산성을 유지해 농가 소득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라며 “비료 과잉 사용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보 제공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비 80% 지원

정읍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작업 사고에 대비하고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봄철에는 파종과 정식, 시설 하우스 등에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이러한 농작업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해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하고 일정 금액을 보상에 주는 제도다.

만 15세부터 87세(일부 상품 84세)까지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같은 보험

료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라면 정읍시가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올해부터는 보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농업작업 사망·장해 특약’을 새롭게 추가해 가입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전국 농축협을 방문해 연중 언제든지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예상치 못한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안전한 영농 활동을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간 연장

익산시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접종 기간을 내달 3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여름철 감염 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접종 대상은 2025~2026월기에 미접종한 △65세 이상 고령층(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으로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미 해당 절기 백신을 접종한 면역저하자자의 경우에도 면역 형성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의료진 상담을 통해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의료기관 방문 전 반드시 전화로 백신 재고를 확인해야 한다. 위탁의료기관은 보건소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는 여전히 고위험군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라며 “접종 대상에 해당하면 연장된 기간 내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부안마실축제’ 성료... 25만 발길

전국구 축제로 도약... '지속가능한 축제 모델' 제시 높은 평가 받아

부안군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부안 해돋이마루 지방정원에서 개최된 제13회 부안마실축제가 총 방문객 25만 1,000명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일상이 특별해지는 5월의 선물’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축제는 황금연휴를 맞아 전국 각지에서 구름 인파가 몰려들며, 지역을 넘어 전국구 축제로 도약하는 확실한 발판을 마련했다.

축제는 시작부터 끝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화려한 공연으로 방문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지난 2일 개막식에는 글로벌 아이돌 피프티피프티와 임창정, 예능, 소명 등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출연해 축제의 분위기를 열었으며, 폐막일인 지난 5일에는 뽀로로 싱어송와 함께 진성, 김태연 등 트로트 스타들이 대미를 장식했으며, 밤하늘을 수놓은 대규모 불꽃놀이는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낭만을 선사했다.

무엇보다 이번 축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생을 실천한 '지속가능한 축제'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개최된 제13회 부안마실축제가 25만명 방문객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사진=부안군>

받았다.

관내 상권과 축제장에서 3만 원 이상 소비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기아 모닝 차량과 '부안몬 프렌즈' 카드형 골드바를 증정하는 이벤트는 지역 소비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또한 캡슐 자판기를 통해 지역 맛집 정보를 제공하는 '부안2IP' 프로그램은 축제장의 활기를 부안군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이외에도 부안몬 자연 놀이터, 로컬푸드 팜파티, 환상적인 야간 경관 조형 등 낮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다채로운 즐길 거리가 방문객들을 맞이하

며 체류형 관광의 재미를 더했다.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부안의 넉넉한 인심과 마실의 매력을 한껏 만끽하며 5월의 특별한 추억을 남겼다.

김종문 부안군 대표축제 추진위원장은 “이번 축제에 25만 명이 넘는 많은 분이 방문해 주셔서 부안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지역 상권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전 세대가 함께 화합하고 즐길 수 있는 더욱 알찬 축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안=온봉기 기자

김제시 '기초이음 프로젝트' 최종 선정

지역순환형 일자리구조구축

김제시는 6일 고용노동부 주관의 2026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인 '기초이음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초이음 프로젝트는 전북도 체류형 관광을 기반으로 권역 간 관광 수요와 일자리가 선순환하는 연계형·통합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김제, 전주, 군산, 부안, 고창을 중심으로 관광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제시는 현장형 관광일자리 연계 거점으로서 농촌체험 및 농생명 기반 체험형 관광일자리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본 사업 선정으로 국비 20억 원을 확보했으며 도비 4억 원 등 총

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김제시를 포함한 참여하는 5개 시·군은 각각 2천만 원씩 분담한다.

지원 대상은 관광기업으로, 인력 양성부터 취업까지 이어지는 지역 순환형 일자리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성장 컨설팅 및 근무체계 개선 지원 등 총 5,900만 원이 지원되며, 기업 근로자에게는 재직자 복리후생 지원금 50만 원,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 300만 원, 전북투어패스(STAY) 가맹점 근로자 대상 건강검진 40만 원 등이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북도와 서해안권 5개 시·군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관광 산업과 일자리 창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집중단속

오는 7월까지 실시

고창군이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앞두고 오는 7월까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양귀비와 대마는 강한 환각 성분을 포함한 마약류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주택가 정원 등 밀집지역이 우려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관내 전 지역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마약성분이 포함된 양귀비는 열매가 크고 둥글며, 줄기와 꽃봉오리에 털이 없고 매끈한 특징이 있고 잎은 회청색을 띤다. 일반인의 재배는 전면 금지돼 있으며, 바람 등에 의해 씨앗이 퍼져 자생한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오인해 재배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양귀비 또는 대마를 무단으로 재배하거나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1주만 재배해도 형사 입건되는 등 단속 기준이 엄격히 적용된다.

유병수 고창군보건소장은 “양귀비와 대마 불법 재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주민들께서는 주변에서 의심되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 즉시 고창군보건소 약물관리팀이나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주민 체감형 사업 발굴 본격화

인구유입·정주 집중

김제시는 6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발굴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주민수요를 반영한 체감형 사업 발굴에 본격 나섰다.

이번 회의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4개 부서 관련 업무 담당 팀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방향이 지역 소멸 문제 해결과 주민 체감 성과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김제시는 지난 4월 19개 읍·면·동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일자리 부족(25%) △정

년 유출(24%) △의료 접근성 문제(18%)가 지역소멸의 핵심 과제로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의 필요 사업 분야 역시 △일자리(28%) △보건·의료(21%) △생활인프라(16%)순으로 나타나 향후 투자 방향이 명확해졌다는 분석이다.

시는 이번 실무회의를 통해 이러한 주민수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단순 시설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 실제 인구유입과 정주로 이어질 수 있는 전략 사업 발굴에 집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투자계획은 단순한 사업 추진이 아니라 실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사업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주민수요를 기반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 활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중앙농산, 농산물 가공 협력

복분자농공단지 투자협약 판로 확보소득 증대 기대

고창군이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중앙농산(대표 정진권)과 복분자농공단지 투자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 농산물 가공산업 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중앙농산은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809-1번지 복분자농공단지 내 부지 3507㎡에 고춧가루 제조·가공 시설을 이전한다.

2029년까지 총 19억원을 투자하고

51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중앙농산은 기존 고추 도·소매 기반을 바탕으로 제조·가공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며, 원재료 입고부터 세척·건조·분쇄·선별·포장·출하에 이르는 체계적인 생산공정을 갖춘다.

특히 관내 고추 생산농가와의 직거래 매입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부가가치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서에는 공장 건축, 원료 수급, 인력 고용 과정에서 관내 기업과 인력을 우선 활용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창군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중앙농산은 이달 분양계약 체결과 착공을 시작으로 7월 공장 등록과 사업개시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투자협약이 복분자농공단지 분양 활성화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특장산업 영역 확장 나선다

254억 규모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 공모 선정

김제시는 6일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특장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김제시가 주력하고 있는 특장산업을 건설기계 분야로 산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제품 개발부터 시험·평가,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254억 원(국비 130억 원 포함)이 투입된다.

최근 건설기계 산업은 친환경·스마트·고안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나, 국내 산업은 일부 품목 중심 구조와 기술격차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특히 특장차와 건설기계는 제작 기준과 인증 절차가 상이해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지속돼 왔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산업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설계·해석·검증·시험평가를 아우르는 전주기 상용화 지원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으로, 건설기계 핵심부품 및 완성차의 설계·검증·실차시험을 지원하는 인프라와

장비를 구축하고,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과 사업과 지원을 통해 산업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시는 국내 유일의 특장차 집적단지인 기반으로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밀집된 산업 여건을 갖추고 있어, 특장산업과 건설기계 산업 간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김제시 특장산업이 건설기계 분야로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전주기 상용화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계절근로자 지역화폐 소비 확대 추진

골목상권 활성화 등 선순환 모델 정착 나서

고창군이 3400여명에 달하는 외국계절근로자들의 지역내 소비를 유도하면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 선순환 모델정착에 나선다.

6일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고창지역에서 농촌일손을 돕는 외국인계절근로자는 3400명 선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소비가 지역 내에서 이뤄지도록 고창사랑상품권 이용 확대를 추진

한다.

운영방식은 근로자가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이후 상품권 구매를 희망할 경우, 행정에서 구매 수요를 취합해 상품권을 일괄 구매·배부하게 된다. 상품권 할인율은 군민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상품권은 정책발행분으로 고창군 관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군은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외국인계절근로자(약 3000명 기준) 월 10만원 수준의 상품권 사용시 연간 약 18억원 규모의 지역 소비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3400여 명 기준으로는 그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

된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소비는 식당, 마트, 편의점, 생활용품점 등 지역 골목상권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소상공인 매출 증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은 “외국인계절근로자는 고창 농업을 지탱하는 중요한 인력이자 지역에서 소비를 하는 경제 주체”라며 “근로자가 고창에서 번 소득이 지역 상권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유도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해담품종 첫 모내기 진행

부안군은 영농철을 맞아 지난 1일부터 출포면 우포리 일원에서 해담품종 첫 모내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모내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생종 벼인 해담은 밥맛이 우수하고 도열병, 흰잎마름병 등 병충해에 강하고 내도복성이 특징으로 여건이 안정적인 경우 8월 말에는 햅쌀 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앞두고 벼농사 필수 영농자재인 육묘상토, 육묘상처리제 및 유기질비료 등 지원사업을 추진해 농가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모내기는 이달 한달 내 본격적인 모내기가 진행되고 내달 중순까지 이

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모내기는 전 세계적인 긴장 상태 속에서 진행돼 그 의미가 예년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군은 현재 중동사태와 관련해 유류 가격 상승과, 비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작물 생산비용 증가, 농자재 수급 문제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상황에 식량 생산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모내기 작업이 탈 없이 잘 이루어지고 이번 중동사태가 농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풍년을 맞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고창군 '무장음성축제' 성료... 체험형 프로그램 호응

고창군 무장음성 일원에서 열린 '제6회 무장음성축제'가 약 1만여 명의 방문객이 찾는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고창군 무장음성보존회주관으로 열린 이번 축제는 '1417 무장음성, 사람을 부르다'를 슬로건으로, 축성 609년의 역사적 의미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특히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연휴 기간에 맞춰 개최되며 가족 단위 방문객을 겨냥한 콘텐츠를 대폭 강화한 점이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장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캐릭터 공연 '티니핑 실용토요'를 비롯해 조선시대 의복 체험, 병영 체험, 전통놀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펼쳐졌다.

또한 동원 일원에서는 '모여라! 무장초등학교' 프로그램이 진행돼 과거 학교 공간을 재현하고 전통놀이를 즐기는 등 세대를 아우르는 참여형 콘텐츠로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609m 녹두가래며 퍼포먼스, 무월임성 성 밝기 체험, '전봉준 장군의 밑서를 찾아라' 스탬프 투어, 무장포고문 필사 체험 등 역사와 교육을 접목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며 무장음성의 역사적 가치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김기욱 보존회장은 “올해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크게 늘어나며 체험형 역사축제로서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무장음성의 역사성과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무장음성축제를 고창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농업정책과, 농번기 맞아 방울토마토 농가 일손돕기 나서

김제시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관내 방울토마토 재배 농가에서 진행됐으며, 농업정책과 직원들이 참여해 생육 관리에 필요한 일제거와 유통을 위한 박스 집기 작업을 도왔다.

특히 일제거 작업은 과실이 햇빛이 고르게 닿도록 해 광합성을 촉진하고, 통풍 개선을 통해 병해를 예방하는 등 작물의 품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업이다.

이날 직원들은 농가의 안내에 따라 작업요령을 숙지한 뒤 일제거 작업과 유통박스 집기를 병행하며 생육 관리와 출하 준비에 힘을 보탰다.

해당 농가주는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승종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통해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현장 중심의 농업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 주산면 지사협, 취약가구 주거환경 개선 스위트 홈 추진

부안군 주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4일 자체 특화사업인 스위트 홈 사업을 추진했다. 스위트 홈 사업은 주산면 관내 주거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와 청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 대상자는 주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통해 발굴했으며,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으로 위생관리가 되고 있지 않으며 주변사람들과 단절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청소와 속도 등을 지원하게 됐다.

나용성 공공위원은 “앞으로도 주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주변의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박성철 민간위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고령의 어르신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시게 해 협의체 위원으로서 뿌듯함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주변 이웃들을 잘 살피고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협의체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온봉기 기자

정착 지원 고도화로 '귀농귀촌' 경쟁력 키워

완주군, 오감 투어형 귀농귀촌 교육 '인기' 모집 정원 2배↑ 신청...선도농가 현장 견학

완주군이 지난달 30일부터 3일간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며 정착을 설계할 수 있는 '오감 투어형 귀농귀촌 교육'을 선보이며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실제 농촌 현장에서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는 체험 중심 활동으로 구성된 도시민들이 보다 구체적인 정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특히 모집 정원의 2배가 넘는 신청자가 몰리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사전 심층 상담을 통해 교육 목적과 적합한 27명을 선발해 참여자 맞춤형으로 운영해 실질적인 효과를 높였다.

이번 오감 투어는 귀농귀촌 정책 설명을 비롯해 로컬푸드 직매장 및 가공 센터

견학, 선도 농가 방문, 작목별 체험, 문화 체험, 지역 탐방 등 다양한 현장 활동으로 구성했다. 또한 선배 귀농귀촌인과의 교류 및 교육생 간 소통 활동을 통해 귀농귀촌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제공과 함께 협력 체계 형성 기회를 마련했다.

참여자들은 현장 체험을 통해 실제 정착 가능성을 확인하고, 로컬푸드 유통 체계와 농산물 판매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에 대한 방향을 구체화하는 계기를 얻었다.

이와 함께 완주군은 체류형 농업 창업 지원 센터, 귀농인의 집 등 단계별 정착 지원 정책과 연계해 교육 이후 실제 이주와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AI부터 농기계까지 실용형 귀농교육 실생활 중심 역량 강화...도시민 상담·홍보도

순창군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한 실용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군은 실생활 중심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2026년 상반기 귀농귀촌인 실용교육'을 운영했다. 교육 과정은 △AI 활용 교육 △농촌주택 수리교육 △농기계 실습교육 등 3개 분야로 구성했다.

AI 활용교육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농 및 마케팅 기법을 실습 중심으로 진행해 참가자들의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였다.

아울러, 농촌주택 수리교육은 도배·타일·페인트 등 기초 시공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주거 환경 개선에 필요한 실질적인 기술 습득을 지원했다.

또한 농기계 실습교육은

영농철을 맞아 수요가 높은 관리기, 트랙터, 포크레인 등 농업기술센터 보유 장비를 활용해 안전교육과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귀농인은 "주택 신축을 준비하며 교육에 참여했는데, 시공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군 관계자는 "귀농귀촌 초기에는 주거 환경을 스스로 정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습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은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서울 배대동에서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상담과 홍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 춘향제, 최현석 미식 토크콘서트 '홍행'

최 셰프 무대 700여명 운집 남원 식재료 요리 철학 소통



<사진=남원시>

'제96회 춘향제'가 스타 셰프 최현석과 서울현대교육재단 교수 및 학생들의 참여로 K-콘텐츠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남원시는 지난 5일 오후 2시 남원 예루림 무대에서 개최된 '최현석 셰프와 함께하는 미식 토크 콘서트'가 관람객들의 폭발적인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남원의 맛과 멋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 전 세계에 알리고자 기획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시작 전부터 700여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운집해 춘향제의 뜨거운 인기를 실감케 했다. 남원시 홍보대사인 MC 김범준의 진행으로 문을 연 무대는 최현석 셰프 특유의 정교하고 역동적인 '소금 퍼포먼스'가 더해지며 현장 분위기를 압도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최 셰프는 토크 콘서트 내내 남원의 우수한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 철학을 공유하며 관객들과 긴밀히 소통했다. 특히 어린이날을 맞아 현장을 찾은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는 오감을 만족시키는 차별화된 문화적 경험을 선사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남원시 관계자는 "춘향의 고귀한 정신과 남원의 맛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세계인의 눈높이에 맞추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순창군, 대학생 생활비 지원...학업 부담 덜다

6-22일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 학기당 최대 200만원 차등 지원

순창군이 지역 대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덜기 위한 생활지원금 지원에 나선다.

군은 '2026년 상반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을 6일부터 2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물가 상승과 주거비·생활비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출신 대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업 지속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만 40세 미만의 순창군 출신 대학 재학생이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자 △관내 중학교 졸업 후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후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가 포함된다.



<사진=순창군>

다만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직업전문학교 재학생과 정규 학제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대학 1학년 2학기부터 4학년 2학기까지 최대 7학기이며, 4년제 초과 과정도 동일하게 최대 7학기까지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학기당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와 재학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시설관리공단, 용진읍 신청사 '문 활짝'

옛 용진읍사무소 리모델링 활용 '군민 체감 공공서비스 확대'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희수)이 출범 1년 8개월여 만에 용진읍에 신청사를 마련해 이전했다.

지난 2024년 10월 24일 완주군 봉동읍 청사(옛 봉동읍사무소)에서 출범한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은 7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용진읍 신청사(옛 용진읍사무소)로 이전에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공단은 완주군으로부터 5개 사업용 위탁받아 출범한 이후, 2026년에는 수영장 시설 4개소(완주국민체육센터, 삼례청소년수련관, 봉동근로자복지관, 이서문화체육 센터)를 추가로 위탁받았다.

신규 위탁 사업 확대에 따라 조직 전문성 확보를 위해 체육시설팀을 신설했으며, 조직규모 또한 출범 당시 110명에서 현재 198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공단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됐다.

공단은 이번 신청사 이전을 계기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한층 강화하고, 공공 시설 관리·운영 전반에 걸친 서비스 품질을 높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희수 완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신청사 이전은 공단의 미래 성장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라며 "군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해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하절기 24시간 비상방역체계 가동

5-9월 수인성 감염병 집중 대응 의료기관·학교 예방홍보 강화

남원시 보건소(소장 한용재)는 하절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한다.

여름철은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병원체 증식이 활발해짐에 따라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남원시보건소는 비상방역근무반을 편성해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2인 이상 집단발생 시 역학조사, 접촉자 조사, 검체 채취·이송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의료기관·학교·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와 신고 체계를 강화한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병원성 세균, 바이러스, 원충에 오염된 물 또는 식품 섭취로 인해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장관 증상을 유발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

물은 끓여 마시기 △생소·과일은 깨끗한 물에 충분히 씻어 먹기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조리 및 준비 금지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음식물(음용수 포함)을 섭취한 2인 이상에게서 설사, 구토 등 장관감염 증상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한용재 남원시보건소장은 "비상방역체계 운영을 통해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일상 속 예방수칙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이주갑 완주군의원원 예비후보 무소속 출마 선언

5개 읍면별 맞춤형약 발표 목은 현안 해결·경주 강화 방침



이주갑 예비후보

이주갑 완주군의원원 예비후보가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동네를 아는 일꾼, 다시 이주갑"을 슬로건으로 구어·상광·소양·삼례·이서 지역을 아우르는 읍면별 맞춤형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구는 더 넓어졌지만, 넓어진 선거구를 핑계 삼지 않겠다"며 "더 많이 듣고, 더 자주 만나고, 더 가까이 듣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공약은 각 읍면별 현안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읍면별 맞춤형약으로 구성됐다. 구이면 공약은 구이저수지와 모악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레저 활성화와 생활문화·체육 인프라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상관면 공약은 죽림온천부지, 편백숲, 신리역공원, 주차 문제, 송전선로 문제 등 목은 현안 해결에 방점을 찍

다. 소양면 공약은 환경권과 건강권 수호를 핵심으로 제시했다. 삼례읍과 삼봉지구 공약은 교육·돌봄·정주·환경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이서면 공약은 혁신도시주차난과 이서면 소재지 교통 문제 등 생활 불편 해소에 중점을 뒀다.

공통공약으로는 완주·전주 상생발전 사업 지속 추진과 전주시 협약 준수 이행 촉구, 아파트 공동체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프로그램 지원 확대, 주민자치프로그램 추가 및 감사비 인상 예산 확대, 시설관리공단 근무자 처우개선,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 처우개선, 장애인 단체 지원 확대, 완주군청 각 노조 국내·국외 연수 기회 확대 등을 제시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어린이날 축제 '복직' 체험·놀이 한가득

체험·먹거리 등 30개 부스 운영 지역 기관·단체 공동 참여 추진

순창군청소년연합기관(청소년수련관·순창청소년문화의집·순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은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5일 '순창과 함께 크는 어린이 꿈'을 주제로 제10회 어린이날 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순창군민예술회관 앞 광장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됐으며,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행사는 △순창아너스클럽 △순창청년회의소 △순창청소년보호협의회 △순창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대한

적십자봉사회 강천봉사회 △순창경찰서 △순창소방서 △순창교육지원청 △순창군가족센터 △순창군자원봉사센터 △순창비전로타리 △순창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한국부인회 등 지역 내 유관기관 및 단체가 참여해 공동으로 추진됐다.

행사장에서는 체험, 먹거리, 놀이 등 총 30여 개의 부스가 운영됐으며, 초청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어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어린이날 맞아 호국보훈 체험행사

독립운동 역사 체험형 프로그램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등 운영

완주군이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미래세대에게 지역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알리고, 일상 속 호국문화 확산을 위한 체험형 홍보행사를 마련했다.

군은 지난 5일 오전 10시부터 어린이날 기념식 행사장 내에 호국보훈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행사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이 우리 지역의 역사와 독립운동가를 자연스럽게

접하며 나라사랑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나라사랑 스티커 만들기 등이 진행됐다.

또한 완주군은 행사장을 찾은 군민들에게 완주독립운동추모공원과 주요 현충시설을 소개하는 안내 리플릿을 배부해, 지역 내 보훈시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방문 활성화를 유도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다가오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전기차 충전 안전 강화 신고·책임보험 의무화

완주군이 전기차동차 충전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충전 시설 설치·변경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 사항을 안내하며 안전한 에너지 환경 조성에 나섰다.

이번 제도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전기차 충전 시설 관리자는 충전 시설을 설치하거나 위치, 수량, 규격, 운영자 상호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해야 하며, 신고서 외 별도 첨부 서류와 수수료는 없다.

또한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감전 등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상 손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됐다. 신규 설치 또는 변경 시설은 전기 공급 전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기존 운영 중인 충전시설은 2026년 5월 28일까지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가 2026년 4월 3일 개정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처리하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 사무가 완주군으로 위임됐다. 이에 따라 완주군 관내 충전시설 관리자는 관련 신고를 완주군에 해야 한다.

완주군 관계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관내 충전시설 관리자에게서 유예기간 내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예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읍면 경로당 16곳 순회 '튼튼혈관 건강교실' 운영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주민들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튼튼혈관 건강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튼튼혈관 건강교실'은 읍·면 지역 경로당 16개소에서 5월 4일부터 8월 21일까지 운영되며,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혈관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성질환 위험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혈압·혈당·콜레스테롤 등 기초검사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교육 △중풍 및 치매예방교육 △우울 및 감염병 예방교육 △구강 및 영양관리, 금연 등 건강생활실천 교육 △근력 강화를 위한 건강체조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공동보건(한방·치과), 영양사, 운동 강사 등 전문 인력이 참여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건강 교실을 통해 시민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완주소방서, 봄철 화재예방 건설현장 소방안전 점검

완주소방서(서장 이주상)는 봄철 화재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소방시설 공사 및 건설현장 7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현장 행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행정은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 건설현장의 화재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봉동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포함한 주요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방시설 공사현장 안전관리 실태 확인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점검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확인 △건설자 대상 화재예방 교육 및 현장 안전 컨설팅 등이다.

아울러 현장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안내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장수군, '타악기가 학교를 점령하다' 공연 성황리 마무리

장수군은 장수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타악전문 예술단체 '방타타악기(대표 방승주)'의 (SCHOOL: 타악기가 학교를 점령하다) 공연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6일 밝혔다.

학교생활을 모티브로 한 이번 공연은 드럼과 북뿐만 아니라 마림바, 비브라폰, 봉고 등 세계 각국의 다양한 타악기를 한자리에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로 꾸며졌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타악기들의 정교한 울림과 역동적인 리듬은 지역 내 초등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농구공, 급식판, 주걱 등 일상적인 물건을 활용한 이색 퍼포먼스가 함께 펼쳐지며 색다른 재미를 더했다.

특히 이번 공연은 단순 관람을 넘어 연주자와 함께 손뼉을 치고 무릎을 두드리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물임도를 높였으며 학생들은 리듬에 맞춰 춤을 추며 자연스럽게 공연을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농협, 성수지점 준공 화환 대신 받은 백미 기탁

임실농협(조합장 최동선)은 지난달 29일 백미(10kg) 100포를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기탁된 백미는 최근 임실농협 성수지점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준공식 자리에서 일회성 화환 대신 백미를 기부받았으며, 이를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한 것으로 의미가 남다르다.

기탁된 백미 100포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 독거노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등 1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최동선 임실농협 조합장은 "성수지점 준공을 축하해주시는 많은 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이번 기탁이 가능했고, 보내주시는 성원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임실농협은 지역과 상생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전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햇빛소득마을 전문 파트너 기업 모집

진안군이 주민주도형 태양광발전 사업인 '햇빛소득마을'의 성공적인 추진과 안정적인 운영을 이끌어 나갈 전문 파트너십 구축에 나선다.

군은 오는 12일까지 햇빛소득마을 사업 전 과정을 수행할 '진안형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J-ReSCO) 동행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J-ReSCO는 'Jinan Renewable Energy Service Company'의 약자로 기존 단순 시공 중심에서 벗어나 설계·시공·감리는 물론 사후 운영관리(O&M), 행사사무 대행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전문 파트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이번 동행기업 선정을 통해 기술·재무·운영 역량을 두루 갖춘 기업을 선별함으로써 주민 수익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발생과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자격은 한국에너지공단 ReSCO 등록기업이 대표기업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이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ReSCO 기업은 오는 12일 18시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진안군청 농촌협력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15일까지 평가를 거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저지종 '첫 송아지' 탄생

군-축산과학원 협력 결실 저지종 수정란 이식 사업 도입 이후 첫 분만 성공

임실군이 프리미엄 낙농 산업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첫 성과를 거두며 새로운 도약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군은 국립축산과학원으로부터 도입한 저지종(Jersey) 수정란 이식 사업의 결실로, 최근 저지종 송아지 3두가 처음으로 태어났다고 밝혔다.

이번 분만은 지난 2024년 공급받은 수정란을 이식해 얻은 첫 성과로 그동안 체계적으로 추진해온 저지종 번식 및 보급 시스템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번 성과는 국립축산과학원과 긴밀한 협력에서 비롯됐다.

임실군은 지난 2023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2027년까지 저지종 생축과 수정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기로 했으며, 현재까지 생축 11두와 수정란 60개를 확보하는 등 단계적인 번식 기반을 구축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진이 농가를 직접 방문해 신선란 이식을 지원하는 현장 밀착형 기술 협력



임실군은 국립축산과학원으로부터 도입한 저지종(Jersey) 수정란 이식 사업의 결실로, 최근 저지종 송아지 3두가 처음으로 태어났다고 밝혔다. <사진=임실군>

이 본격화되면서, 저지종 도입 확대와 개체수 확보는 물론 사육 기반 조성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달 27일에는 조용민 국립축산과학원 원장이 직접 임실 농가를 찾아 저지종 사육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했다.

임실군은 현재 지역 낙농가에서 저지종 젖소 46두를 사육하며 프리미엄 원유 생산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저지종 원유는 소화기 비교적 용이한 'A2'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유제품에

민감한 소비자층에서도 선호도가 높고 고농도 영양 성분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과거 영국 왕실에 공급되었던 품종이라는 상징성과 뛰어난 품질을 동시에 갖춘 것 또한 강점이다.

군은 이러한 저지종 품종의 고품질 원유를 활용해 '임실N치즈'를 비롯한 숙성치즈와 요거트의 품질을 한층 끌어올리고 프리미엄 유제품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어르신 '낙상사고' 막는다!

지정 기부 제1호 사업 어르신 변기 안전 손잡이 지원

무주군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 제1호 사업으로 '손잡이(GO!) 안심하고(GO!) 어르신 변기 안전 손잡이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낙상 사고 위험이 큰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6개 읍면 주민 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거주하는 100가구다.

총 2,156만 원의 사업비는 모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지난 1월 세부 계획 수립 및 협의를 거쳐 전문 업체와 표준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달 22일부터 사업에 착수했다.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될 구체적인 사업을 직접 선택



해 기부하는 것으로, 무주군에서는 '어르신 변기 안전 손잡이 설치 지원'을 비롯해 '무주연극 동아리 활성화 지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통학 차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박선옥 무주군 자치행정과장은 "오는 6월 30일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

획"이라며 "고향을 아끼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해 주신 소중한 마음들이 주민 안전과 행복이라는 값진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정 기부 사업 추진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최희호 기자

장수군, 청소년참여기구 활동 '본격'

6일 발대식·워크숍 성료 연대 강화·자치활동 역량 높여

장수군은 장수청소년문화의집 강당에서 지역 내 청소년 참여기구 소속 청소년 20여 명이 참여한 '2026년 청소년 참여기구 첫 만남 교류 워크숍'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 간 소통과 교류를 넘어 실제 정책을 기획하고 제안하는 '자치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워크숍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청

소년참여위원회 등에서 활동 중인 청소년들이 함께하면서 각기 다른 공간에서 활동하던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험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참여기구 발대식을 시작으로 워크숍 수어, 참여기구별 활동 방향 논의, 교류활동 및 자치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참여기구 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높이고 주도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청소년들이 서로의 활동에 친밀감

을 형성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특히 교류·자치교육 '우리가 만드는 아지트'는 아이스브레이킹과 가치 탐색, 공간 개선 아이디어 도출, 활동 기획 등 참여형 프로그램은 참여 청소년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정우 군수 권한대행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연합활동을 통해 소통과 협력의 경험을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류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농자재값 부담 '농업미생물'로 완화

경영비 절감·작물 생산성 촉진

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의 여파로 각종 비료와 농약 등 농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업인들의 사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임실군 농업기술센터가 선제적으로 공급 중인 '농업미생물'이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작물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 노릇을 하고 있다.

임실군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지역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업미생물 공급을 추진 중이다.

농업미생물은 토양 환경을 개선하여 화학비료 사용량을 어느정도 줄일 수 있게 해준다. 이는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는데 일조하며, 작물의 면역력까지 높여주고 영양분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작물의 생산 촉진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제는 임실군이 자체적으로 배양해 보급하고 있는 핵심 미생물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농가에서 일명 '뿌리왕'으로 불리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특허균

주 'GH1-13'은 작물의 잔뿌리 발달을 강력하게 촉진하고 각종 병해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작물에 풍부한 영양분을 직접 공급하여 훌륭한 결실을 맺는데 일조하는 일명 '열매왕'이라는 별칭이 붙은 '광합성균' 역시 농산물의 당도와 색깔, 저장성 등 전반적인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농촌진흥청 연구결과가 말해준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향교, 충북 정경손 제례봉행 거행

임진왜란 애국충절 기려

장수군은 장수향교 정충복 비각 앞에서 각급 기관 및 단체장, 장수향교 유립회원, 지역주민 4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정경손 제례봉행이 거행됐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장수향교(전교 이경술)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임진왜란 당시 장수향교를 지켜낸 충북 정경손의 애국충절 정신을 기리고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진행됐다.

제례에는 류지봉 장수군청 행정복지국장이 초헌관을, 한병태 장수문화원장이 아헌관을, 이성송 유림이 종헌관을 맡아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제례의식을 봉행했다.

충북 정경손은 임진왜란 당시 향

교 내 문묘 지킴이로 장수에 침입한 왜적이 문묘에까지 이르자 문을 굳게 닫고 "만약 문에 들려거든 나의 목을 베고 들라"고 호통을 쳤다고 전해진다.

그의 당당한 태도에 왜적들은 본성역물본(本聖城勿犯 이곳은 성스러운 곳이니 침범하지 말라)이라는 족지를 남기고 스스로 물러나 장수향교가 불에 소실되지 않고 현재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다.

이후 1846년(헌종 12년) 정주석 장수현감은 정경손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호성충복정경손수명비'를 세웠으며, 장수군은 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매년 음력 3월 15일에 제례봉행을 이어오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여름학기 인재육성사관학교 참여자 모집

중3~고3 5월 19일까지 모집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이 '2026년 여름학기 인재육성사관학교' 참가자 모집 계획을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주군 인재육성사관학교는 여름과 겨울방학 동안 학생들의 학업 역량 강화와 자기주도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형 학원 입소를 지원(7~8월, 12~2월)하는 것으로, 대상은 학생과 보호자 중 1인의 주소가 모두 무주군이어야 하며 학생의 직전 학기 성적이 석차 기준 상위 70% 이내여야 한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사무국(무주군평생교육원 2층)을 방문하거

나 우편으로 하면 되며, 제출 서류는 무주군청 누리집(https://www.mu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발 인원은 중·고등학교 총 21명(중학교 3학년 6명,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15명)으로, 합격자는 심사를 거쳐 학교 공문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김성욱 무주군청 인구활력과장(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사무국장)은 "지난 2015년부터 인재육성사관학교 사업을 통해 총 642명의 학생의 학업 진전을 뒷받침해 왔다"라며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해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학업 능률과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임실군, 치매극복 선도단체 협약식 개최

임실군치매안심센터, 임실농업협동조합 청용지점 지정

임실군치매안심센터는 지난달 28일 임실농업협동조합 청용지점을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고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사업은 치매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지역 주민들을 지역사회 주체로 동참시켜 치

매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돕는 사업이다.

임실농업협동조합 청용지점은 단체 구성원 모두가 치매 파트너 교육을 이수했으며 치매예방 및 관리법 실천, 치매인식개선 홍보,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이해 등 단체의 정보공유와 재능기부를 통해 치매극복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농촌 일손 돕기 상황실' 운영

기관단체 연계로 인력 지원 강화

진안군은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농촌 일손 돕기 상황실'을 운영한다.

매년 4~5월은 한 해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로, 발작물과 과수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일손 수요가 집중된다. 특히 고령농가와 여성농가의 경우 기계화 작업이 어려워 인력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군은 이러한 농촌 현실을 반영해 봄철 영농 기간인 7월까지 상황실을 운영하며, 시기별·농가별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일손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가을철 영농기간에도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농촌 일손 돕기 상황실은 농업정책과에 설치·운영되며, 일손 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기관·단체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손이 필요한 농가는 농업정책과 인력지원팀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진안군은 관내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일손 돕기를 확대 추진하고, 실과소 및 읍·면사무소 직원들도 부서별 일정에 따라 농촌 일손 지원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상황실 운영을 통해 농번기 인력난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완주 화산면지사협, 저소득층 어르신 카네이션 전달

완주군 화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황호년, 임미정)가 지난 4일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뜻깊은 나눔 행사를 열며 지역 사회에 온기를 전했다.

이날 협의체는 제2차 정기 회의를 개최해 상반기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어버이날을 앞두고 홀로 거주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카네이션을 전달했다.



군산 성산면, 홀몸 어르신에 어린이집 원아들과 선물 전달

군산시 성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박병순, 진미영)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6일 홀몸 어르신 10세대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성산면에 소재한 숲에온어린이집(원장 이성희)이 함께 참여해 더욱 의미를 더했다.

특히 해당 어린이집은 매년 성산면 지사협과 함께 어버이날 행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어, 지역사회에 나눔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날 어린이집 아이들은 어르신께 방문하여 정성껏 만든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울동공연까지 선보이며 어르신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전했다.

이성희 원장은 "아이들이 직접 카네이션을 만들고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효(孝)의 의미와 나눔의 기쁨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뜻깊은 어버이날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한승룡 부이사관 유족, 익산에 장학금 1천만원 기탁

고인 첫 공직직 발전 위해

익산사랑장학재단은 6일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장으로 재직 중 순직한 고(故) 한승룡 부이사관(순직 후 추서)의 유족이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2026년부터 10년간 매년 1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기탁하기로 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배우자 최정완 씨와 아들 한지훈 군이 참석해 고인의 공직 생활과 익산에 대한 애정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고(故) 한승룡 부이사관은 1996

년 임용돼 2004년 전북특별자치도로 전출하기 전까지 익산에서 공직 생활을 하며 지역과 깊은 인연을 맺었다. 이후 2025년 2월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순직했으며, 유족들은 고인이 아꼈던 익산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장학금 기탁을 결정했다.

최정완 씨는 "남편의 공직 시작점이었던 익산은 우리 가족에게 고향과 같은 곳"이라며 "남편의 헌신이 익산의 미래를 이끄는 학생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사랑장학재단은 6일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장으로 재직 중 순직한 고(故) 한승룡 부이사관의 유족이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사진=익산시>

농협 완주군지부, '아침밥 먹기' 캠페인 전개

건강한 식습관 중요성 확산

농협 완주군지부(지부장 원천연)는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완주군 어울림광장에서 '아침밥 먹기 운동 및 농산전심 가치 실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완주군 '어린이날 대축제' 행사장에 방문한 어린이들을 비롯하여 가족 방문객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과 쌀 소비 촉진을 통한 농업·농촌 농민의 가치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농협 완주군지부 직원들은 행사장을 찾은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침밥 먹기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우리 쌀의 소중함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알리는 데 힘썼다.

또한 농산물 홍보와 더불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함께하는 어린이날 금융교육'을 실시하여 현장에 찾은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완주=김명곤 기자



수지초 학생들, 춘향제서 길놀이·드론대회 활약

남원시 수지초 학생들이 제96회 춘향제에 참여해 길놀이와 드론 챌린지 대회에서 활약하며 지역 축제를 함께 즐겼다.

수지초등학교는 지난 3일 수지면민들과 함께 춘향제 길놀이 행사에 참여한 데 이어 4-5일 사랑의 광장 체험부스에서 열린 남원시장배 유소년 드론 챌린지에 학생 25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학교에 따르면 5-6학년 학생들은 수지농악단, 면민들과 함께 비

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비옷을 입고 소고를 치며 수지면 대동길놀이 참여했다. 수지초는 3년 전부터 학생들이 춘향제에 직접 참여하며 지역사회와 어우러지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어 남원시장배 유소년 드론 챌린지에는 2-6학년 학생 25명이 출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금상 2명, 은상 3명, 동상 5명, 장려상 9명 등 모두 19명이 수상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군산 경암동지사협, 홀어르신에 효꾸러미 전달

군산시 경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버이날을 맞아 6일 독거 어르신을 위한 2026년 찾아가는 어버이날 행사 '어버이날, 사랑을 전달해'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독거 어르신 3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효(孝)꾸러미와 카네이션 꽃다발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

이진표 민간위원장은 "어버이날

을 맞아 어르신들께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앞장 설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고창군가족센터, 가족봉사단 피부마사지 봉사활동

고창군가족센터(센터장 정혜숙)는 지난달 1일부터 24일까지(매주 수, 금요일) 총 8차례에 걸쳐 고창 가족봉사단 역량강화교육으로 피부마사지 교육을 진행했다.

이런 교육에는 결혼이민자와 지역주민 10명이 함께 참여하여 피부마사지 전문성을 높였다.

특히 참여자들은 피부 상태에 따른 마사지 방법, 기본적인 위생 관리, 어르신 대상 서비스 시 유의사항 등을 함께 배우며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기술을 익혔다.

교육을 마친 봉사단은 지난달 30일 고창군 신탄면 보건지소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피부마사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첫 활동으로, 참여자들은 마을 주민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다해 마사지를 진행했다. 가족봉사단의 마사지를 받은 주민들은 큰 만족을 하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가족센터 피부마사지 봉사활동은 11월까지 매월 1회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어린이날 토종농작물 모종 나눔행사

김제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5일 김제시실내체육관에서 어린이날 행사와 연계해 토종농작물 모종 나눔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공들에게 토종종자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김제시여성농민회(이하 김여농)가 가정에서도 손쉽게 재배할 수 있는 토종옥수수 모종 외 3종, 1,800주의 나눔행사를 실시했다.

김여농은 토종씨앗의 가치와 우수성에 대해 어린이들에게 알려주면서 토종옥수수 외 3종의 모종과 토종씨앗을 나눠줬으며 어린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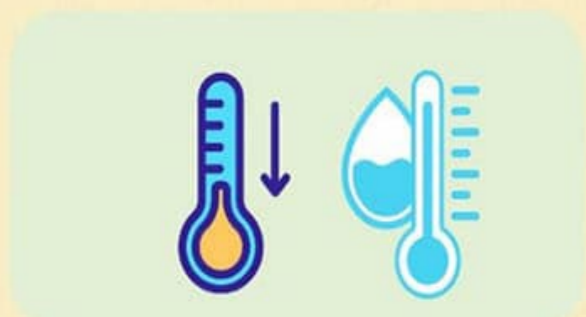
아이와 부모들은 어린이날 행사를 즐기면서 생명의 소중함과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평가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환절기 감기 예방

일교차가 큰 환절기일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감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내온도와 습도 적절히유지 온도 20~22℃, 습도 50~60%



외출 후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채소와 과일 충분히 섭취하기



따뜻한 물 충분히 마시기

〈一事一言〉



폐교는 사라진 공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지역의 중심이다

배해수

무형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고고인류학 박사

대한민국 곳곳에서 학교의 문이 닫히고 있다. 학생 수 감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흐름이며, 이제 폐교는 낯선 풍경이 아니다. 그러나 이 현상을 단순한 교육 환경의 변화로만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 학교는 단순한 배움의 공간을 넘어 마을의 중심이었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 관계를 이어가던 생활의 거점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공간이 사라진 자리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백이 함께 남는다.

현재 폐교 활용은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다. 문화시설이나 체험 공간으로 전환된 사례도 있고, 지역 관광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도 한다. 다만 이러한 시도는 외부 방문객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조용해지는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지역 주민의 일상과 충분히 연결되지 않으면 공간은 다시 비어 있게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시설의 형태가 아니라, 그 공간이 지속적으로 사람을 머물게 하는 구조를 갖추는 일이다.

이 지점에서 폐교는 새로운 가능성을 품는다. 이미 갖추어진 공간을 지역의 현실과 필요에 맞게 다시 구성하는 일, 그것이 지금 필요한 방향이다. 먼저 도농 교류의 거점으로서의 활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폐교 운동장과 교실을 중심으로 주말 장터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농촌에서

생산된 소량의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가공 체험이나 농산물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구성하면 단순한 판매를 넘어선 복합적인 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운영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꾸준히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반복적으로 만나는 구조가 만들어질 때, 공간은 자연스럽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와 함께 외부 인구 유입을 위한 거점으로의 전환도 중요하다. 폐교를 체류형 공간으로 정비하여 청년이나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일정 기간 머물며 지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순한 숙박 제공을 넘어 지역 의 일과 연결되고, 생활의 리듬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이 쌓이면 일시적인 방문이 관계로 이어지고, 그 관계가 정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도 현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공간의 주체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폐교는 과거의 기억을 보관하는 장소에 머물 필요가 없다. 그곳을 졸업하고 지금까지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 주민들이 전통음식을 만들고 나누

는 과정, 전통놀이를 함께 배우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은 세대를 잇는 매개가 된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지역의 삶과 문화가 이어지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외부 방문객에게는 살아 있는 문화를 접하는 기회가 되고, 주민에게는 자신의 경험이 가치로 이어지는 순간이 된다.

이러한 변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주민이 운영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행정은 방향을 제시하고 기반을 지원하되, 실제 운영은 지역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초기 시설 개선과 운영 안정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도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 공간은 사람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이다.

폐교는 남겨진 자산이다. 그 가치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공간에 다시 온기가 흐르게 하는 일은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지역의 필요를 정확히 읽고, 그에 맞는 기능을 차근차근 채워가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생산과 소비가 이어지고, 외부와 지역이 연결되며, 세대가 자연스럽게 만나는 공간으로 재구성될 때 폐교는 다시 살아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건물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공간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일이다.

기고

“우리 무왕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10여 년 전, 이집트의 룩소르에 있는 왕가의 계곡(Valley of the Kings)을 방문한 적이 있다. 3500여 년 만에 이집트의 파라오(왕)인 투탕카멘의 미라와 부장품들이 쏟아져 나와 세상을 놀라게 한 적이 있어 그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투탕카멘의 미라는 발굴 당시부터 줄곧 자신의 영원한 안식처에서 평안히 잠들어 있었다. 이집트인들의 여론이 파라오(왕)는 발견된 장소에 그대로 영원한 안식처에 모셔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무왕님(서동)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2017년에 발굴했으니 약 10여 년은 본인의 영원한 안식처인 무덤을 떠나 어느 실형실이나 차디찬 수장고에 계시지

않은지...

우리의 무왕님은, 우리의 친근한 서동은, 발견된 장소인 고향 익산에 안치되어 영원한 안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이집트의 파라오(왕)인 투탕카멘처럼 말이다.

익산 국립박물관에 있는 무왕의 널(관)을 가져다 현장에 안치하고 무왕의 전신 뼈는 평안히 널(관) 안에 잘 모셔야 한다.

그것이 우리 익산인들의 자존심을 살리고, 익산이 백제의 왕도임을 알리는 일이고, 초·중·고 국정 교과서에 익산이 백제 왕도임을 수록하게 하여 백제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 될 것이다.

북한의 평양시 강동군에는 대형 화강암 돌무덤인 '단군릉'이 있다. 북한은 이곳이 단군부부의 뼈가 나와 유골을 측정해온 결과 5000여 년 전의 것이라 주장하며 지금처럼 웅장한 돌 석조물의 모습으로 단군릉을 건설했다고 한다.

지금 우리 무왕은 어떠한가? 왕무덤의 상징인 석조무덤이 있다는 사실과, 탄소

연대 측정 당시에 무왕의 사망 시기와 일치하고(641년), 뼈의 분석 결과도 60대 이상의 남성으로 판명되었는데 무왕 사망 당시 고령이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와 무왕의 기골이 장대했다던 문헌기록도 일치, 서동무왕능의 설화도 있지 않았던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무왕능의 실존기록이므로 우리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

중국 시안의 진시왕릉 옆에 있는 세계 8대 불가사의의 하나인 병마용갱이 대형 건물로 덮여져서, 사시시절 눈비가 와도 그 고대시설을 보호하고 있듯이, 우리도 황윤광습 시설한 무왕을 안치한 무덤을 중심으로 대형 돔(Dome)을 건축한다면, 전국의 수학여행 학생들, 전 국민, 전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뜨거운 장소(Hot Place)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

하루빨리 우리의 무왕, 우리의 서동은 우리의 곁으로 모셔와야 하지 않은가?

사)마한백제문화예술제전위 전 위원장 김완수

진실을 전하는 힘

전북타임스

https://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사설

민주당이 버린 전북의 자존심, 이제 유권자가 답할 차례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북지사 경선 파행이 결국 현직 지사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라는 비극적 사태를 초래했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당의 제명 결정을 '정치적 학살'이자 '전북 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폭거'로 규정하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공천(公薦)이 아닌 사천(私薦)으로 전북을 흔든 중앙 정치권의 오만은 빛이날 참사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명확하다. 이재명 리더십이 공언해온 '시스템 공천'은 전북에 와서 계파 논리와 심기 살피기에 밀려 철저히 파괴되었다. 현직 지사를 단 12시간 만에 '기습 제명'하고, 그 과정에서 불거진 형평성 논란에 침묵으로 일관한 지도부의 행태는 전북을 '만만한 표밭'으로 여기는 오만함의 극치였다. 안호영 의원이 불공정 경선에 항의하며 단식하다 응급실로 이송되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던 지도부의 비정한 정치는 도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

결국, 민주당은 전북의 자존심을 스스로 내팽개쳤다. 지역의 특수성과 도민의 목소리는 안중

에도 없이 중앙의 권력 암투와 계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의 리더를 난도질한 것이다. 이것이 과연 민주당이 외치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가치인가. 전북을 소모품으로 여기지 않고서야 감히 이토록 무례할 수는 없다.

이제 공은 전북 도민들에게 넘어왔다.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사 한 명을 뽑는 투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전북의 정치적 운명을 중앙당의 입맛대로 주무르려는 오만한 리더십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장이 되어야 한다. 당적(黨籍)보다 무서운 것이 도민의 뜻을, 무소속 출마라는 비극을 자초한 민주당 지도부에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전북이 더 이상 중앙 정치의 '방관자'나 '들러리'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원칙 없는 공천과 사람에 대한 예의 조차 없는 정당에게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민주당이 버린 전북의 자존심을 되찾는 길은 오직 유권자의 냉철한 투표뿐이다. 전북의 주인은 정당이 아니라 도민이라는 사실을, 6월 3일 투표장에서 준엄한 경고장으로 답해야 한다.

오늘의시

목련 / 이재무

내 몸
동그렇게 구부려
그대 무명치마 속으로
굴러놓고
봄 한철 흥여처럼 앓다가

사월이 아쉽게도
다갈 때

나도 함께 그대와
소리 소문 없이
땅으로 입적했으면

시인 약력 : 1958년 충남 부여 출생. 한남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국문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1983년 '삶의문학', '문학과사회' 등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제2회 난고문학상과 제15회 평운문학상, 제17회 이육사 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시집으로 선달그림, 온다던 사람 오지 않고, 별초, 몸에 피는 꽃, 한 사람이 있었다 산문집으로 생의 변방에서 등 다수 작품이 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원)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양지국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국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백지국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전지국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8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재정 혁신 넘어 행정 혁신으로”

정읍시, 혁신 엔진 달고 달린다!

관행 깨고 실리 집중 대통령상 수상 '탄탄한 살림' 혁신·적극행정 지자체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맞춰 쓰는 행정”에서 “잘 쓰는 행정”으로 전환
 과거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예산을 확보하느냐로 결정되곤 했다. 하지만 전북자치도 정읍시가 재정혁신을 발판으로 행정 전반의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예산을 얼마나 많이 확보했는가보다,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했는가에 행정의 초점을 맞추면서다.
 2025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수상에 이어 적극행정 5년 연속 우수기관, 정부혁신 우수기관 선정까지 이어지며 정읍시의 변화는 행정 운영 방식 전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정읍시 변화의 출발점은 재정 운용 방식의 재정비였다. 시는 사업 시행 이전 단계부터 사전감사와 계약심사를 강화해 예산 낭비 요인을 줄이고, 관례적으로 반복돼 온 지출 구조를 전면 재검토했다. 시정 방향과 실익에 맞지 않는 국·도비 매칭사업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확보 중심’이 아닌 ‘효율 중심’으로 재정 기조를 전환했다.
 우선 △사업 시행 전 단계부터 예산 낭비 요인을 원천 차단하는 사전감사 및 계약심사를 대폭 강화해 예산 집행의 정밀도를 높였다. 또한, △수년간 관례적으로 반복되던 선심성 재정지출을 과감히 중단하는 결단력을 보였으며, △시정 방향과 맞지 않는 불필요한 국·도비 매칭 예산을 전략적으로 점검해 사업 자체를 재검토 하는 등 보여주는 재정의 재정을 탈피했다.
 정읍시의 재정혁신은 단순한 절감과는 결이 다르다. 사업을 줄이거나 일을 하지 않아 남은 예산이 아니라, 같은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바꿔 만들어낸 재원이란 점이 핵심이다.
 기존처럼 관행적으로 추진하던 사업 구조를 그대로 유지했다면 발생했을 비용을, 사전 검토와 방식 개선을 통해 구조적으로 줄여낸 것이다. 다시 말해 ‘덜 쓴 행정’이 아니라 ‘더 잘 설계한 행정’의 결과다.
 □ 관행을 바꾼 재정혁신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이어져 이 같은 변화는 현장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스포츠타운(체육트레이닝센터)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토석을 매각하여 지출을 줄인 사례는 기존 방식이라면 처리 비용이 발생했을 자원을 수익으로 전환한 것으로 행정의 창의성이 예산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델이 되었다. 행정의 판단 기준이 ‘관례’에서 ‘실익’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사업 방식의 변화로 확보한 재정 여력은 다시 행정 전반의 변화로 이어졌다. 정읍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혁신·적극행정 지자체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적극행정 부문에서는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 행정의 진화, 혁신평가 미흡→보통→우수... 실행력으로 바꾼 결과
 정부혁신 평가 흐름에서도 정읍시의 변화는 뚜렷하다. 정읍시의 혁신평가 세부추진과제는 2023년 15개에 그치며 ‘미흡’ 평가를 받았으나, 2024년 11개 과제로 조정되며 ‘보통’ 수준으로 개선됐다. 이어 2025년에는 71개 과제로 대폭 확대되면서 평가도 ‘우수’로 상승했다.
 이 같은 변화는 단순한 과제 확대가 아니라, 행정 운영 방식 전반을 바꾸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다. 시는 청년 공직자 중심의 ‘혁신ON’ 운영을 통해 내부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신규직원 브런치 토크를 통해 조직 내 소통과 문제 해결 구조를 강화했다.
 동시에 현장 중심 행정 강화와 기술감사 가능 확대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의 비효율을 사전에 점검하고, ‘정읍 소통방’ 운영 등 상시 소통 창구를 통해 시민 의견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구축했다.
 이러한 변화는 실제 시민 체감 정책으로도 이어졌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대시민 정책달력 제공, 시내버스 무료환승제도 도입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전 분야에 걸쳐 확대하면서, 행정 혁신을 시민 편

의 개선으로 확장했다. 결국 내부 혁신과 현장 행정, 시민 소통이 맞물리며 정책 전반의 실행력이 높아졌고, 이는 혁신평가 지표 전반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졌다.
 □ 정읍시 혁신정책의 미래, 멈추지 않는 ‘움직이는 정읍’
 정읍시 혁신정책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움직이는 정읍’이다. 관행을 당연시하지 않는 ‘관행타파’,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행정’, 시민 삶의 변화를 기준으로 삼는 ‘시민중심’으로, 정지된 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요구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하고 반응하는 역동성을 의미한다. 상급평가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은 단순 성과가 아닌 정읍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이정표이다.
 □ 혁신정책의 끝은 ‘재투자’, ‘시민체감’으로의 선순환 구조 구축
 정읍시 재정혁신의 본질은 절감 자체가 아니다. 방식 개선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다시 시민 복지, 생활 인프라, 미래 산업에 재투자하는 데 있다.
 이는 ‘재정혁신-행정혁신-시민 체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과

정이다.
 정읍시의 변화는 재정, 조직문화, 정책 체계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향후 과제는 이러한 혁신이 평가 결과를 넘어 시민의 일상 속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행정혁신의 최종 평가는 수치가 아니라 시민 체감에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2026년 정읍시가 이어갈 다음 단계는 분명하다. 2025년 재정 운영의 내실화 성과를 기반으로 시정 전반의 효율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절감으로 확보한 재원을 시민 생활과 미래 기반에 재투자해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이 실제 시민의 삶 속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향후 시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재정혁신의 성과를 행정 전반으로 확장하고, 이를 다시 시민 체감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자리 잡을 경우 정읍시 행정의 지속가능성 또한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변화의 완성은 숫자가 아니라 일상에서 드러난다. 관행을 넘어선 행정이 시민의 하루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 답을 현장에서 증명해야 할 시간이 시작되고 있다.
 /정읍=김정민 기자

선거 준비는 빠를수록 유리 합니다.
홍보물의 완성도가 후보의 첫 인상을 결정 합니다.

Design Plan

Printing

Digital photography

Editorial Design

6.3 지방선거 ONE-STOP 선거 홍보 제작팀

유한회사 준테크 TEL-063-226-5888
E-Mail_jhchoi3075@daum.net

대홍정판사 TEL-063-254-0056~7
E-Mail_hi056@hanmail.net

아트엔포토 TEL-063-251-0987
E-Mail_ap0987@daum.net